

한중일 크루즈 어느 배를 타야 할까?

올 여름 크루즈 선사 두 곳이 한국과 중국, 일본을 오가는 한중일 크루즈 상품을 동시에 운영한다. 2008년 부산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가 첫선을 보인 이래 동아시아의 크루즈 시장은 계속 성장했다. 생각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삼국의 매력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로얄캐리비안(Royal Caribbean) 크루즈'와 '코스타(Costa) 크루즈'의 상품을 비교했다.

글 박상현 기자 · 사진 연합뉴스 DB, 로얄캐리비안 크루즈, 크루즈 인터내셔널



올해 운항하는 한중일 크루즈는 '크루즈 여행 대중화'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로얄캐리비안 크루즈와 코스타 크루즈가 이번 여름 동아시아에서 대결을 펼친다.

객실은 물론 다양한 레스토랑과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갖춘 크루즈는 화려하다. 크루즈 선사에서 발행한 가이드북의 표지에는 '지상 최고의 휴가'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밤마다 공연이 펼쳐지고 코스 요리로 구성된 정찬이 제공되며, 선내에는 수영장과 피트니스센터 등이 마련돼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크루즈를 상류층의 전유물로 지레짐작한다.

그러나 한중일 크루즈 상품의 가격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편견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챌 수 있다. 부산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돌아오는 크루즈 7일 상품의 최저 가격은 110만 원 수준이다. 별도로 내야 하는 팁을 포함시켜도 120만 원을 넘지 않는다. 일본 패키지여행 5일 상품이 100만 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다지 비싸지 않은 셈이다.

모두투어, 롯데관광 등 대형 여행사와 크루즈 전문 여행사를 표방하는 썬타크루즈는 크루즈 상품 조기 예약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내걸고 여행자를 유혹하고 있다. 크루즈 상품이 대중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일반 여행과 비슷한 비용으로 명품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진 탓인지, 한중일 크루즈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좋다. 코스타 크루즈의 국내 판매 회사인 크루즈 인터내셔널의 관계자는 "여름 휴가의 절정인 7월 말과 8월 초에는 이미 객실 예약이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코스타 크루즈와 로얄캐리비안 크루즈는 이번 여름 부산을 모항으



로 하는 크루즈를 각각 14회씩 운항할 예정이다. 코스타 크루즈는 쌍둥이 선박이나 마찬가지로인 클래식(Classica) 호와 로맨틱(Romantica) 호, 로얄캐리비안 크루즈는 레전드(Legend) 호를 한중일 노선에 투입한다. 크루즈 상품이 생소한 사람을 위해 두 배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1. 크루즈 선박

레전드 호와 클래식(로맨티카) 호는 대형 크루즈는 아니다. 로얄캐리비안 크루즈의 세계 최대 크루즈인 오아시스 호는 22만이다. 이에 비해 레전드 호는 7만, 클래식 호는 5만3천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레전드 호는 로얄캐리비안 크루즈의 선박 중에는 가장 작은 축에 들지만, 다른 선사와 비교하면 소형 크루즈라고 하기는 어렵다.

코스타 크루즈의 클래식 호는 레전드 호보다 전장이 약 40m 짧



크루즈에서는 1주일을 머물러도 지겹지 않다. 극장과 상점, 수영장과 피트니스센터, 카지노와 도서관, 다양한 레스토랑이 커다란 배 안에 모두 들어서 있기 때문이다.

고, 중량은 1만7천 가깝다. 최대 탑승객도 1천690명 전후로 레전드 호가 400명 가까이 많다. 그러나 규모의 차이가 부대시설의 차이를 반영하지는 않는다. '선내에서 숙식 및 놀이를 완벽히 보장한다'는 크루즈의 기본 취지에는 똑같이 부합한다. 두 선박이 건조된 나라는 레전드 호가 바하마, 클래식 호가 이탈리아이다. 레전드 호는 올해 1월 보수를 완료해 2005년에 마지막으로 내부를 손본 클래식 호보다는 전반적으로 깨끗하다는 평가다.

레전드 호		클래식 호
70,000t	총수	53,000t
264m/32m	전장/전폭	220m/31m
24노트	최고 속도	20노트
2,074명	최대 탑승객	1,680명
바하마	선적	이탈리아

★ 로멘티카 호는 전장 221m, 최대 탑승객 1,697명.

2. 객실

크루즈의 객실은 창문의 유무에 따라 나뉜다. 내측 혹은 인사이드라고 불리는 객실은 바다가 보이지 않는 반면, 오션 뷰나 아웃사이드 객실은 푸른 바다를 향해 커다란 창이 나 있다. 그러나 내부의 시설은 크게 다르지 않다. 두 명이 누울 수 있는 침대와 샤워 시설이 갖춰진 개별 화장실, 소파 등이 있고 텔레비전, 전화, 미니바, 개인

금고도 비치돼 있다. 레전드 호와 클래식 호의 객실 구성은 대동소이하다. 다만 레전드 호에는 발코니가 딸린 선실이 231개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오션 뷰 객실의 창문은 열리지 않으므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발코니는 매우 매력적이다. 발코니 객실의 한 단계 위에는 보다 널찍하고 서비스가 좋은 스위트룸이 있다. 일반 객실의 경우 면적은 클래식 호가 약간씩 더 넓은 편이다.



내측 선실은 레전드 호가 16㎡, 클래식 호가 17㎡이다. 또한 오션 뷰 객실도 16㎡의 클래식 호가 14.3㎡의 레전드 호보다 조금 더 크다. 레전드 호의 슈퍼리어 발코니 선실은 방이 17.9㎡, 발코니가 3.5㎡이다. 객실 수는 레전드 호가 902개, 클래식 호가 654개이다.

3. 선내 시설

머칠을 목어도 투숙객이 지루해 할 틈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크루즈의 철칙이다.

레전드 호와 클래식 호도 눈길을 사로잡는 즐길 거리가 곳곳에 숨어 있다. 다만 클래식 호는 4-7층은 객실, 8층 이상은 레스토랑 및 부대시설로 구분이 확연하지만 레전드 호는 객실과 부대시설이 샌드위치처럼 층별로 엇갈려 배치돼 있다.

두 선박에는 모두 대형 레스토랑, 간단한 음식과 음료를 맛볼 수 있는 바, 극장,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조깅 트랙, 사우나, 카지노, 도서관 등이 있다. 식도락과 유흥, 쇼핑을 한 장소에서 모두 즐길 수 있다. 크루즈에서는 주류와 인터넷, 전화 사용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무료여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보통 선내 시설의 수는 선박의 크기와 비례한다. 클래식 호에는



로얄캐리비안 크루즈 레전드 호

일정	여행 기간	출발일
부산-해상-상하이-해상-가고시마-나가사키-후쿠오카-부산	8일	6/25, 7/9, 7/29, 8/5, 8/12, 8/19, 8/26
부산-해상-상하이-해상-미야자키-고베-후쿠오카-부산		6/18, 7/2, 7/16
부산-해상-상하이-해상-가고시마-후쿠오카-부산	7일	7/23
부산-해상-상하이-해상-후쿠오카-부산	6일	6/13
부산-해상-후쿠오카-부산	4일	6/10
부산-해상-텐진	3일	9/2

코스타 크루즈

일정	여행 기간	출발일
부산-후쿠오카-가고시마-해상-상하이-해상-부산(클래식)	7일	7/11, 7/17, 7/23, 7/29, 8/4, 8/10, 8/16
부산-해상-텐진-해상-제주-후쿠오카-부산(로멘티카)		7/6, 7/12, 7/18, 7/24, 7/30, 8/5, 8/11

없으나 레전드 호에는 있는 시설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인공 암벽(Rock-climbing Wall)이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크루즈 위에서 안전 요원의 설명을 들은 뒤 높은 곳을 정복하는 쾌감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레전드 호에는 9홀로 이루어진 미니 골프 코스도 조성돼 있다.

어린이 시설도 레전드 호가 더 충실한 편이다. 레전드 호에는 생후 6개월부터 17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7개의 연령대로 구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어드벤처 오션(Adventure Ocean)' 이 있다. 리조트처럼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고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클래식 호에도 '미니 클럽 스텝'이란 어린이 전용 시설이 마련돼 있다.

4. 일정

크루즈는 대개 모항에서 저녁에 출발해 이곳저곳을 들른 뒤 마지막 날 아침 귀환한다. 첫날에는 승선 수속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출항 2시간 전까지는 항구에 도착해야 한다. 그리고 본격적인 크루즈 여행은 그 다음날부터 시작된다.

한중일 크루즈는 3일이나 4일처럼 짧은 일정이 아니라면 세 나라에 모두 정박한다. 일반적으로 부산, 중국 상하이, 일본 규슈를 순환하는 여정이 가장 인기가 높다. 코스타 크루즈의 클래식 호와 로멘티카 호는 6일 간격으로 같은 코스를 돈다. 클래식 호는 부산-후쿠오카-가고시마-상하이-부산, 로멘티카 호는 부산-텐진-제주-후



크루즈 여행은 기항지보다 출발 일자과 시설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 쿠폰을 제공하거나 어린이에게 무료 탑승의 기회를 주는 선사도 있으므로 미리 혜택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쿠오카-부산을 순회한다. 이동 거리는 로멘티카 호가 훨씬 길다.

반면 레전드 호는 여행 기간이 훨씬 다양해서 짧게는 3일, 길게는 8일로 나뉜다. 하지만 절반 이상은 8일이다. 8일 상품은 코스타 크루즈의 두 선박보다 일정이 하루 더 길기 때문에, 기항지도 한 곳 더 방문한다. 후쿠오카, 가고시마, 나가사키, 미야자키, 고베 등 일본에서 이름답기로 손꼽히는 항구도시를 가보지 못했다면 레전드 호가 좋다.

기항지에 체류하는 시간은 레전드 호가 클래식 호나 로멘티카 호보다 길다. 이는 레전드 호의 최고 속력이 클래식 호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오후 4시에 크루즈가 출발하면 레전드 호는 이를 후 오전 6시에 텐진에 닿지만, 로멘티카 호는 같은 날 오전 10시에 도착한다.

5. 기항지

기항지는 크루즈 여행에서 주인공이 아니다. 게다가 한중일 크루즈의 기항지는 유럽이나 카리브 해의 기항지에 비하면 평소 여행하기 어려운 곳들이 아니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상하이에서는 엑스포가 열리고, 여름에는 일본 각지에서 축제가 개최된다. 이전에 한중일 크루즈의 기항지를 여행해본 경험이 있다고 해도, 이번 기회를 통해 색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다.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계속되는 상하이 엑스포는 올해 동아시아에서 열리는 각종 이벤트 가운데 가장 기대되는 행사다. 상하이를 관통하는 황푸강 둔치에 세계 각국의 문화와 특징을 알리는 국가관과 테마관이 들어선다. 레전드 호의 6-8일 일정과 코스타 크루즈의 클래식 호는 엑스포 열기로 후끈할 상하이를 방문한다.

일본의 기항지에서는 불꽃놀이 일정을 미리 조사해 가면 도움이 된다. 레전드 호 상품 중에는 후쿠오카에서 오후 10시에 출항하는 일정이 있는데, 7월과 8월 사이에 후쿠오카 현에서는 약 40회의 불꽃놀이가 실시된다. 출항 시간 때문에 불꽃놀이를 보지 못하더라도, 축제의 분위기만은 느낄 수 있다.

6. 가격

레전드 호와 클래식 호의 여행 상품 가격은 차이가 크지 않다. 7월 말에 출발하는 7일 일정의 크루즈 상품을 살펴보면 내측 객실은 클래식 호가 10만 원쯤 저렴하고, 오션 뷰 객실은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크루즈 선박에서도 내측과 오션 뷰 객실 사이에 가격이 다른 이유는 높은 층에 위치할수록 숙박비가 비싸기 때문이다. 높은 층의 객실은 면적이 넓고, 편의시설까지 가는 시간이 적게 걸린다. 일정에 따른 가격 정책은 두 선사가 다르다. 코스타 크루즈는 어떤 날짜에 출발하든, 요금이 균일하다. 제일 저렴한 내측 객실은 언제나 113만 원이다. 하지만 로얄캐리비안 크루즈의 레전드 호는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요금이 치솟는다. 2층의 오션 뷰 객실이 6월 25일 출발 상품은 130만9천 원이지만, 8월 5일 출발 상품은 167만9천 원이다. 따라서 성수기에는 클래식 호나 로멘티카 호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

코스타 크루즈의 가장 큰 장점은 부모와 동행하는 만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은 무료라는 사실이다. 항구 이용료 및 세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내는 것이 전부다. 물론 레전드 호도 어린이 요금을

로얄캐리비안 크루즈 레전드 호 7일(7월 23일 출발)

구분	가격
내측	1,229,000~1,339,000원
오션 뷰	1,449,000~1,579,000원
발코니	1,859,000원
주니어 스위트	2,229,000원
어린이 요금	499,000원
3/4인 요금	1,039,000원

코스타 크루즈 7일(7월 24일 출발)

구분	가격
인사이드	1,130,000~1,260,000원
아웃사이드	1,440,000~1,620,000원
어린이 요금	200,000원
3/4인 요금	780,000원

50만 원 안팎으로 낮게 책정해놓고 있다.

이에 반해 로얄캐리비안 크루즈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중일 크루즈인 레전드 호에 오르기 전, 로얄캐리비안 크루즈를 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골드 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음료, 와인, 기념품 구입 시 10~25%가 할인되는 쿠폰 복이 제공되고 정기적으로 발급되는 쿠폰도 선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Y**

가족 여행을 위한 최고의 선택, 크루즈

크루즈 선사 중 한 곳인 '카니발 크루즈'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탑승객의 수는 10년 전에 비해 6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형 크루즈 선사들은 어린이 여행자를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고 있다. 코스타 크루즈의 부모 동반 어린이 무료 탑승이 대표적인 예다.

업체들이 가족 여행객에게 크루즈 여행을 추천하는 주된 이유는 '이동의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이다. 도시에서 도시로 오갈 때 비행기나 기차를 타려면 아이들을 데리고 커다란 짐을 끌어야 한다. 하지만 크루즈에서는 가방을 객실에 놔둔 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풍부하고, 어린이 시설이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또한 배는 출입이 엄격히 통제돼 안전하며, 다양한 나라에서 온 오래 친구들과 사귄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한편 한중일 크루즈에서는 언어에 따른 불편을 거의 느낄 수 없다. 로얄캐리비안 크루즈와 코스타 크루즈에는 한국어 직원 약 20명이 상주하고 선상 신문, 게시판이 우리말로 번역되며 한글 안내 방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로얄캐리비안 크루즈에서는 크루즈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가이드북을 탑승객에게 배포한다.

